

## 速과 菩薩의 研究

金 鎮 玖  
漢陽大學校 衣類學科 教授

### A Study on Sok (速) and Bosal (菩薩)

Jin-Goo Kim, Professor  
Department of Clothing and Textiles, Hanyang University

#### 目 次

Abstract	1. 綾曰菩薩
I. 緒論	IV. 結論
II. 羅曰速	參考文獻
III. 綾曰菩薩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and to trace the origins and meanings of *sok* (速) and *bosal* (菩薩).

Comparative linguistic analytical approaches were employed for this research.

The analysis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sok* (速) of Koryo was derived from *sok* (速) of Chinese, the phonetic value of *sok* (速) and *sok* (速) in Chinese are *su<sup>4</sup>*. The word *sok* (粟) refers to *kok* 𪎭 (穀) and *kok* (穀) refers to *ra* (羅).

The *bosal* (菩薩) of Koryo was related to textile terminologies of many languages such as Hebrew, Mongolic, Manchu, Gilyak, Turkish and so on.

Therefore, the *bosal* of Koryo was identified as a fabric term used in Koryo.

#### I. 緒 論

鷄林類事에 所收된 高麗方言은 우리의 古語 研究 資料로서 稀有의 價値를 지녔음은 물론 우

리의 國語 研究에 많은 參考가 된다.

따라서 鷄林類事의 高麗方言에 대한 研究는 國內外 學者들에 依하여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고, 그 研究의 成果 또한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鷄林類事의 高麗方言 가운데는 아직도 우리들이 理解할 수 없는 것들이 적지 않다.

鷄林類事의 高麗方言은 漢人의 著作으로 그것은 高麗時代의 高麗方言을 漢語 音譯하여 記錄한 것이기 때문에 研究者들이 그것을 아무리 연구하여도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고 그 동안 研究者들이 그것을 解讀하고 解釋한 것들 中에서도 見解를 달리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위의 범주에 드는 것 中에서 「羅曰速」「綾曰菩薩」이라고 있는 織物名을 택하여 解釋하여 보려고 한다.

織物名으로서의 速과 菩薩이란 말은 鷄林類事 高麗方言에 「羅曰速」「綾曰菩薩」이라고 하는 記錄外에는 우리나라 文獻에서 뿐만 아니라 中國古文獻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말이다.

그러므로 高麗織物名으로 나타나는 速과 菩薩이란 말은 高麗의 독특한 方言이었는지 또는 그 연원은 물론 다른 주변 언어에 速이나 菩薩이란 말들과 比較될 만한 織物名이 있는지도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速이나 菩薩에 대한 研究도 자연히 그 말들을 解讀하려는 노력 정도로 그쳤을 뿐 그 이상은 이루어지지 못하였었다.

## II. 羅曰速

羅의 朝鮮初語는 노(no)와 뇌(nö)였다.

불근 노 노모초란 (紫羅囊) [杜解 8<sup>49</sup>]

흰 노 큰 더그레예 (白羅大塔胡) [老下11<sup>33</sup>]

눗라 (字會中 30)

朝鮮館 譯語에는 「羅曰刺」라 있어 朝鮮時代에 羅는 라(ra)음으로도 났었다.

前問은 「羅曰速」의 速을 刺의 誤字로 ra라고 解析하였다. (前問恭作, 鷄林類事 麗言攷, 東洋文庫, 1925 p. 87)

그러나 各傳本에는 「羅曰速」外에 다른 글자가 있지 않고 前問만 「羅曰速」의 「速」字를 「刺」字의 誤로 보았는데 그의 이러한 解析은 朝鮮館 譯語의 「羅曰刺」에서 연유된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速」字와 「刺」字는 그 音이 同一하지 않다.

方鍾玄도 「羅曰速」의 速字를 아무 說明없이 「노」라고 解讀하였다(鷄林類事 研究, 東方學志 제 2집, 1955, p. 182). 陳泰夏는 「羅曰速」에 대해서 앞으로의 研究가 더 必要하다고 하였다(陳泰夏, 鷄林類事研究, 1974, p. 474).

羅를 速이라고 했던 高麗語에 관한 기록은 鷄林類事外에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羅曰速」의 「速」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하여 羅의 意味를 보면 織物과 관계가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廣布 (「素隱」羅, 廣布也)
2. 布 (「太玄經, 應」六幹羅如, 「注」羅, 布也)
3. 文疏羅 (「釋名, 釋采帛」羅, 文疏羅也)

4. 帛類 (「類篇」羅帛類)
5. 縠 (「淮南子, 齊俗訓」弱縠羅紈) 「注」羅, 縠.
6. 綺屬 (「楚辭, 宋玉, 招魂」) 羅綺張些. 「注」羅, 綺屬也

縠도 여러가지로 說明된다. 縠에 대한 說明은 다음과 같다.

「說文」에 縠, 細縛也

「說文通訓定聲」에 縠, 細縛也, 按, 今之縠紗也.

「增韻」縠, 縠紗曰縠, 紡絲而織之.

「史記, 司馬相如傳」垂霧縠. 「注」言細如霧.

「漢書 江充傳」充衣紗縠禪衣.

「注」師古曰, 紗縠, 紡絲而織之也.

輕者爲紗 縠者爲縠.

「後漢書, 章帝紀」詔齊相省冰紈方空縠. 「注」縠紗也.

「太平御覽 布帛部, 縠」釋名曰, 縠, 粟也. 其形臧臧如也.

「文選, 宋玉, 神女賦」動霧縠以徐步兮. 「注」善曰, 縠, 今之輕紗也.

薄如霧也.

「玉篇」紗縠也.

「廣韻」羅縠.

「釋名」縠, 粟也. 其文足足而踞踞 視之如粟也.

戰國策 不若王愛尺縠也. 「註」縠細縠也.

「廣雅 釋器」縠, 絹也.

위의 여러 뜻 가운데서 羅는 縠이라고 解析되어 있다. 縠은 縛, 紗, 羅, 縠, 粟, 絹의 뜻이 있다. 釋名에 縠, 粟也, 其文足足而踞踞, 視之如粟也라 있는 것과 太平御覽, 布帛部, 縠은 위의 釋名을 引用하여 釋名曰, 縠, 粟也, 其形臧臧如也라 있는 기록에 의하면 縠은 粟이다.

즉 그 모양이 꾸글거미려 조(粟) 같이 보이는 織物이 縠이고 粟인 것이다. 織物名으로서의 粟이란 이름은 바로 이 織物의 特徵에서 由來된 것이다. 縠紗란 織物 卽 現代織物 用語로 쉽게 說明하면 英語로 crepe가 古代中國의 粟이란 織物인 것이다.

粟字의 漢音을 보면 다음과 같다.

「廣韻」에 相玉切, 「集韻」, 「韻會」須玉切, 「正韻」蘇玉切, 音涼. 沃<sup>4</sup> suk, su<sup>4</sup>

다음에 速의 音을 보면 「廣韻」蘇谷切, 「韻會」蘇木切, ㄙ<sup>4</sup>音速 su<sup>4</sup>

위에서 보면 粟과 速音은 같다.

羅는 縠이고 縠은 粟이다. 그러므로 羅는 粟의 意味도 가지고 있다. 그런데 高麗에서는 羅를 粟이라고도 하였으므로 鷄林類事의 저자는 羅를 意味하는 粟音을 이 글자와 同音인 速音을 取音하여 速이라고 기록하였다고 解釋된다.

그러므로 鷄林類事의 高麗方言 「羅曰速」이라고 있는 기록은 誤記가 아니다. 前問의 見解 같이 「羅曰速」의 기록에서 速은 刺의 誤字가 아니며 ra 音의 表記도 아닌 것이다. (麗言攷, p. 87)

李朝語로 羅를 노, 뇌, 또는 솔기라고 했던 것을 다음과 같은 기록에서 볼 수 있다.  
 杜初 8<sup>9</sup>, 불근 노늬뎨초란(紫羅囊) 內訓 2<sup>4</sup>,綺난 기비오 穀은뇌라. 訓蒙字會中 30, 뇌라(羅).  
 번역 小學 9<sup>106</sup>, 고뢰며 솔기며 금슈뵈(綾羅錦繡).  
 羅의 意味인 「솔기」란 李朝語는 羅를 意味했던 「速」이란 高麗方言의 한가지 변형이라고 행석된다. 李朝語에 솔 直領이란 말이 있다. (海東歌謠, p. 107). 여기의 솔이란 말도 羅直領이라 解析된다.

### Ⅲ. 綾曰 菩薩

「綾曰 菩薩」이란 記錄은 各傳本에 한가지로만 나타난다. 綾의 朝鮮初語는 고로였다. 四聲通解 下, 57에 「綾, 綺他, 고로」라 하였고, 訓蒙字會中 30과 新增類合上, 25에도 「고로릉」이라 있다.

朝鮮館 譯語에 綾曰果落이라고 있다. 번역 小學<sup>106</sup>에도 「고뢰며 솔기며 금슈뵈(綾羅錦繡)」이라 있다.

研究者들은 「綾曰菩薩」의 「菩薩」은 菩薩의 誤記일 것이라 생각하고 菩릉은 골, 고로를 標記한 것일 것이라고 보았거나 또는 그것을 化綾의 뜻으로 보았고, 「菩薩」의 誤로서 後에 音이 변하여 고로(ko-ro)로 되었을 것이라 推定하였다.

鷄林類事 高麗方言 「綾曰菩薩」의 「菩薩」이란 말은 研究者들이 推定한 바와 같이 「菩薩」이란 말의 誤記였을까?

高麗時代에 菩薩이란 말이 있다가 後에 그 音이 변하여 朝鮮時代의 고로(果落)라는 말이 되었을까?

또는 고로라는 말이 花綾의 意味인 꽃(花)+綾이 菩薩이었을까?

이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하여 우리는 다른 言語에서 菩薩과 類似的한 單語가 있는지 찾아보고 만약 그것들을 찾을 수 있다면 高麗語 菩薩과 유사한 주변어의 音과 意味를 比較하여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言語中에서도 服飾名이나 織物名과 같은 말들은 한 나라의 固有言語로만 存續하는 예도 있긴 하지만 그것들은 特別히 주변 國家나 民族에게 쉽게 전파되는 속성이 있다.

服飾名 또는 織物名 뿐만 아니고, 그것들의 製作方法 또는 使用方法과 같은 것도 함께 전파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織物名으로서의 菩薩이란 말이 高麗에만 있었던 말이었는지 알기 위하여 유사한 주변 언어를 찾아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유사한 주변 언어를 찾아 낸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菩薩이 高麗의 織物名으로서 綾의 異名이라는 것을 건주어 볼 때 綾의 意味를 파악하여 보는 것은 菩薩이란 말의 연원이나 또는 그 주변어와의 比較에 도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菩薩과 類事한 주변어를 찾아보기 전에 먼저 綾의 뜻을 알아 보기로 한다.

綾은 (1) 布帛之細者를 意味한다. 說文에 綾, 東齊謂布帛之細者曰綾이라 하였다.

(2) 文繪을 의미한다. 釋名, 釋采帛에 綾, 凌也, 其文望之如冰凌之理也.

玉篇에 綾, 文縉. 正字通에 綾, 織素爲文者曰綺. 光如鏡面 有花卉 狀者曰綾이라고 說明하였다.

(3) 繪綾 卽 들쭉날쭉 가지런 하지 못한 모양, 不平貌의 뜻이 있다.

高麗方言 菩薩이란 말 綾 卽 織物名으로서의 말과 類似한 말을 周邊語에서 찾을 수 있는지 찾아 보고 그것들을 菩薩과 比較하여 볼 필요가 있다.

먼저 菩字의 漢音을 찾아보면 菩字는 여러 音으로 表音되었는데 그것들은 아래와 같다.

(1) 「廣韻」 「集韻」 薄亥切 音倍 賄<sup>ㄊㄨ</sup> bey pei<sup>4</sup>

(2) 「廣韻」 蒲北切 「集韻」 鼻墨切 音路 職<sup>ㄓ</sup> bo po<sup>2</sup>

(3) 「廣韻」 房久切 「集韻」 扶岳切 音阜有<sup>ㄊㄨ</sup> fuh fu<sup>4</sup>

(4) 「集韻」 蒲沒切 音李月<sup>ㄌㄨ</sup> bor

(5) 「廣韻」 「玉篇」 薄胡切 音蒲虞<sup>ㄆㄨ</sup> pwu pu<sup>2</sup>

薩의 漢音은 「廣韻」 桑割切 曷<sup>ㄏ</sup> sah sa<sup>4</sup>

「集韻」 桑割切, 音撒<sup>ㄙ</sup> sa<sup>4</sup>

위의 菩와 薩의 表音을 가지고 이것을 漢音으로 再構成하여 보면 몇가지 音이 可能하다. 베이사(bey-sa, pei<sup>4</sup>-sa<sup>4</sup>), 보사(bo-sa, po<sup>2</sup>-sa<sup>4</sup>) 부사(fu<sup>4</sup>-sa<sup>4</sup>) 또는 푸사(pu<sup>2</sup>-sa<sup>2</sup>) 등이 可能하다. 薩音은 菩音 뒤의 人音을 表記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즉 벳, 붓, 붓, 풋 등과 같이 말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와 같이 菩薩의 漢音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몇가지 音이 있으므로 이 音들 中에서 어느 音이 高麗의 菩薩이란 音의 表音인지는 알 수 없다.

高麗方言 菩薩이란 말은 綾이란 意味 外에도 米, 粟의 意味로도 使用되었다.

卽 鷄林類事 高麗方言에 「白米曰漢菩薩」 「粟曰田菩薩」이라 있다.

劉昌惇 教授는 이 漢菩薩을 흰 米이라고 解釋하였다. (劉昌惇, 鷄林類事補敲 崔현배 先生 환갑 기념 논문집, 1954, p.146)

米의 鮮初語는 糶이라 하였다.

지금도 우리나라 方言에 白米을 白米이라 하고 粟米을 粟米이라 하며 경상도 方言으로 쌀을 살이라고 한다.

綾을 지칭하는 高麗語 菩薩과 유사한 말을 주변어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히브리 語에 *būs, buz, būts, butz, boots* 등으로 표기되는  $\text{בּוּס}$ ,  $\text{בּוּט}$ 가 있다. 이 히브리어  $\text{בּוּס}$  (*būs, būts*)란 말은 Egypt 語 *hbos, clothe*로 부터 由來된 말인데, 그것은 the finest and most precious stuffs에 적용되는 말이며 a fine white Egyptian linen and cloth made of it를 意味한다. 이 *būs (būts)*란 말은 後의 *byssus*이다.

Phenicia 語로는  $\text{בּוּס}$  이고, Aram. 로는  $\text{בּוּט}$  로서 히브리 語 *būs, būts*와 같다.

히브리어  $\text{בּוּס}$  *būs* > Gr. *byssos* > L. *byssus* > Eng. *byssus*로 되었다. LXX의  $\text{Βύσσοϛ}$ ,  $\text{Βύσσονοϛ}$ 이다. 이 *būs*란 말은 聖經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fine linen"과 "white linen"으로 번역되었다. (歷代上 15<sup>27</sup>, 歷代下 2<sup>4</sup>, 3<sup>4</sup>, 5<sup>12</sup>, 에스겔 27<sup>16</sup>, 에스터 1<sup>6</sup>, 3<sup>15</sup>, 누가복음 16<sup>10</sup>)

$\text{בּוּס}$  *būs, būts*란 말은 linen, 혹은 fine cotton cloth, silk, 또는 이것들 전부를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學者들 간에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Linen과 cotton은 이집트에서 가장 일찌기 mummy-cloths로 사용되었다.

히브리어  $\text{בָּיִט}$  *būs, būts*란 말은 Ar. surpass in whiteness, whiteness란 의미의 말들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도 한다. 그러므로 원래 이 말은 純白性에 그 특징이 있는 織物이었다.

그러므로 *būs, būts*에 해당되는 *bussus*란 말은 古代人에게 알려졌던 특별히 섬세하고 귀중한 직물이었고 이 말은 linen, cotton, silk 등 여러가지 物質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한 잘못 사용되기도 했다.

그러나 근래의 현미경 검사로서 Herodotus가 *búσσos*로 만들어졌었다고 했던 mummy cloths는 一種의 flax였던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英語 聖經의 “fine linen”이란 번역은 정확하였다고 한다. *Byssus*란 말은 그리스어 beard란 말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다.

漢語 大布를 蒙古語로 *붓(bus)*이라 하며 漢語 印花布를 蒙古語로 다루말 *붓(bus)* 이라고 한다. (蒙古語類解下, 19, 布帛). 大布를 滿洲語로는 보소(*bo-so*)라 하고 印花布를 호배보소(*ho-bai bo-so*)라고 한다. (同文類解, 下, 24, 布帛).

Tunkestan語에도 *bus*란 말이 있는데 *bus*란 말은 cotton fabric이란 뜻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rug 디자인에 사용되는 block print가 된 것이다.

Tunkey語 *bez*란 말이 있는데 *bez*란 linen, cotton material, 또는 cloth를 意味하는 말이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말의 베, 또는 布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buz*란 말은 아시아에서 생산되는 표백하지 않는 平織 綿布를 일컫기도 한다.

Bunma語에는 *paso*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經絲와 緯絲를 다른 色으로 染色한 후 手紡績하여 手織造한 비단이나 또는 綿布를 일컫는다.

히브리어  $\text{בָּיִט}$  *būts*란 말은 玉, 祭司長, 높은 등급에 있는 사람들이 입었던 가장 좋고 가장 귀한 옷감을 의미한 말인데 聖經에는 fine linen으로 번역되어 있는 것이다.

*Byssus*는 古代에 특별히 섬세하고 귀한 섬유와 織物로 알려졌었다. 이 말은 linen, cotton, silk 등 여러가지 織物을 意味하게 되었다. 그 意味는 바로 사용되기도 하였고 誤用되기도 하였으나 영어 聖經의 fine linen이 바른 번역이라고 한다.

漢語에도 服瑣란 織物名이 있다. 服瑣란 連瑣文이 있도록 織造한 細布를 일컫는다.

「急就篇, 二」에 服瑣縵帟

「師古注」服瑣, 細布織爲連瑣之文也. 縵帟, 細布之尤精者也 라고 解析되어 있다.

服瑣의 漢音を 보면 다음과 같다.

服

1. 「唐韻」「廣韻」「集韻」「韻會」「正韻」房六切, 音伏<sup>ㄈㄨˊ ㄈㄨˊ</sup> fu<sup>2</sup> fwu
2. 「集韻」弓弓角切 音雹覺<sup>ㄆㄠˊ ㄅㄠˊ</sup> po<sup>2</sup> bo, bau
3. 「集韻」扶兵切 音負有<sup>ㄈㄨˋ ㄈㄨˋ</sup> fu<sup>4</sup>, fuh
4. 「唐韻」蒲北切「集韻」鼻墨切, 「正韻」步墨切, 於音博 po<sup>2</sup>, bo

瑣

「唐韻」蘇果切, 「集韻」損果切, 於音鎖 架<sup>ㄙㄨㄛˊ ㄙㄨㄛˊ</sup> so<sup>3</sup>, suoo

服瑣의 漢音은 대략 fu-so, bo-so, po-so, fu-suoo, bo-suoo, po-suoo 등과 같이 再構成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縵의 意味인 高麗語 菩薩과 類以한 말들을 그 意味와 함께 주변어에서 찾아 보았다. 그것들을 종합하여 요약하면 <表 1>과 같다.

<表 1> 高麗語 菩薩과 周邊語

周邊語名	語 彙	意 味
高麗語	菩薩 ( <i>bey-sa, bo-sa, po-sa, pu-sa</i> )	綾
길약어	<i>pos</i>	布
오로치어	<i>pusu</i>	布
골디어	<i>poso</i>	布
蒙古語	붓( <i>bus</i> )	大布, 무명
滿洲語	보소( <i>bo-so</i> )	大布, 무명(漢) 布, (李) 大布
漢 語	服璵 <i>fu-so, bo-so, po-so, fu-suoo, bo-suoo, po-suoo</i>	細布 (連璵文織)
터키스탄語	<i>bus</i>	cotton fabric (block printed)
터키語	<i>bez</i>	linen, cotton material, cloth
아사아 지역	<i>buz</i>	A plain weave gray cotton material
버마語	<i>pa-so</i>	handwoven silk or cotton fabric
이집트어	<i>hbos</i>	clothe
히브리어	<i>būs, buz, būts, butz, boots</i>	fine linen (white linen) cotton cloth
페니키아어	上 同	上 同
아랍어	上 同	上 同
희랍어	<i>Búσσος, bussós, byssos</i>	fine linen fabric, fine white linen cotton cloth
나전어	<i>byssus</i>	上 同
영어	<i>byssus, bissus</i>	fine fabric, esp, linen cloth, fine yellowish flax, byssus silk, fish wool, pinna silk, pinna manina, pinna wool, sea silk, 바다조개에서 나는 섬유, cotton

高麗語 菩薩은 몽고어 붓(*bus*), 히브리語 *būs*, 漢語 服璵(*fuso, boso, poso, fusuoo, bo-suoo, po-suoo*), 만주어 보소(*baso*) 등과 類音이다.

高麗의 菩薩이 베(이)사, 보사, 포사, 부사나 *bey-sa, bo-sa, po-sa, fu-sa, pu-sa* 또는 그 외 베살, 보살, 보살, 또는 베스, 보스, 부스 또는 벳, 붓, 붓 중 그 어느 한 가지 漢字 音譯이라고 가정할 때에 高麗語 菩薩은 <表 1>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그 주변어들과 관련이 있다.

高麗語 菩薩의 意味인 綾은 ① 布帛之細者란 뜻과 ② 文縉이란 뜻이 있는데 綾의 意味를 ①의 細布로 보면 菩薩은 漢語 服瑣, 터어키語 bez, Heb, *būs, būts, butz, boots, buz*, Gr. *byssos*, L. *byssus*, Eng. *byssus*와 관련이 있다.

菩薩을 綾의 意味 ②의 文縉으로 볼 때 漢語 服瑣가 連瑣文織 細布여서 綾의 意味 ②에 해당된다. 여기 細布의 意味는 麻布의 意味가 아닌 더 廣義의 布帛之細者 即 fine fabric의 意味를 택하였다. 그러므로 服瑣는 連瑣文織의 섬세한 織物을 지칭하므로 비단이나 다른 직물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高麗의 綾을 意味하는 織物名은 (1) Heb. *būs, buz, būts* (Gr. *byssos*)와 (2) 漢語 服瑣 중 한가지 말을 音譯한 것이거나 또는 이것들 中 하나의 변형일 것으로 解析된다. 漢語 服瑣란 말은 古語이기는 하지만 本來의 漢語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이 服瑣란 말도 Heb. *būs, buz* (또는 Gr. *byssos*)의 漢語 音譯으로 보인다. 高麗의 菩薩이 베살, 보살, 부살, 또는 베사, 보사, 부사 中에서 어느 한 품과 유사한 품을 표음한 것이겠지만 어느 한 품이었다고 斷定하기는 어렵다. 高麗語 菩薩은 Heb. *būs, būts, buz, butz, boots*의 高麗語 音譯이거나 또는 한 변형일 것으로 믿어진다. 또한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이 몽고어, 만주어, 漢語, 터크스탄어, 터키어, 길약어, 오로치어, 골디어 등은 서로 관련이 깊은 것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여러 언어들의 연원은 Heb. *bus, buts, buz*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古代 히브리인이 王, 司祭, 貴族, 富者등 지위가 높고 고귀한 사람들의 服飾材料로 使用하였던 이집트의 fine white linen에 대한 히브리 말이 여러 나라 말로 전하여지고 각각 그 언어의 특성에 맞게 변화하였던 것 같이 織物名으로서의 高麗 方言 菩薩이란 말에서도 주변언어에서 처럼 그 전파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高麗語 「綾白菩薩」에서 高麗의 綾의 意味는 綾의 몇가지 意味가운데서 그 意味 全部에 使用되었던 것인지 어느 특정한 한가지 意味로 使用되었던 것인지 確定하기 어렵다. 그러나 여기서 本 研究者는 綾의 意味를 廣義의 意味로 택하고자 한다.

高麗의 織物名인 菩薩은 漢音으로 bey-sa, bo-sa, (po-sa), fu-sa (pu-sa) 등의 재구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앞에서 보았다. 韓語로 b, p, f는 상호호환 가능한 품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이것들을 韓音으로 간략하게 다시 옮기면 베(이)사, 보사, 부사 정도가 된다.

菩薩의 薩字는 반드시 菩薩 bey-sa, bo-sa, bu-sa와 같이 末音 sa를 表音한 것이 아니고 어떤 外國語의 類音에 상응되는 품의 音譯이거나 또는 그것이 우리말의 s품에 상응되(d)는 表音한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몽고어에서 보이듯 「붓」과 같이 말이다.

그러나 鷄林類事의 高麗方言 菩薩이란 말은 綾의 意味外에도 「白米曰 漢菩薩」「粟曰田 菩薩」이라고도 있어 여기의 菩薩은 앞에서의 菩薩의 몇가지 漢音과 朝鮮館 譯語의 糯米를 敢別 二色이라 한 것(二色은 色二), 粟米를 左色二이라 한 것을 綜合하여 (文璇奎, 朝鮮館 譯語研究 景仁文化社 花木門, 1972 pp. 166-168) 그 품을 볼 때 「베살」일 것이라 생각된다. ㅂ쌀, ㅅ쌀 등으로 읽었지만 품의 ㅂ 품은 漢音에 없고 ㅅ(稻)의 李朝語는 「벼」와 「베」 두 가지로 나타나고 「벼」의 方言은 「베」로 우리나라 여러 地方의 方言으로 널리 퍼져있으며 쌀의 方言도 「쌀」로 남아있다. 薩의 漢音에는 「쌀」품도 없다.

米를 意味하는 鷄林類事의 高麗方言 菩薩이란 말이 가령 ㅂ쌀, ㅅ쌀 ㅅ쌀, 또는 「베살」 등의 품을 가졌던 高麗語를 표음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菩薩이란 織物名이 米의 意味인 품

薩과 반드시 同音이어야 하고 同音이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孫穆은 귀에 들리는 대로 高麗語를 取音하여 기록하였을 것이므로 그가 記錄하여 놓은 高麗方言들은 高麗語에 近似한 漢字音譯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 IV. 結 論

鷄林類事 高麗方言에 「羅曰速」, 「綾曰菩薩」이라고 있는 織物名을 解讀하고 解釋한 結果 얻은 結論을 要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鷄林類事の 高麗方言에 「羅曰速」이라고 있는 것에 대하여 研究者들은 이 記錄은 「羅曰刺」의 誤文이며 刺音은 ra일 것이라는 見解와 「羅曰速」을 「노」라고 解讀하였었다.

그러나 本 研究에서는 鷄林類事の 高麗方言 「綾曰速」이란 記錄은 誤文이 아니라는 것이 규명되었다.

따라서 高麗語에 漢字音으로 「速」이라고 표음되었던 羅의 意味를 가진 織物名이 있었다는 것이 확증되었다.

「羅曰速」의 高麗語 「速」에 상응되는 말은 漢語 「粟」이란 것이다.

이 粟字는 速字와 同音으로 su이다.

粟이란 字는 糶(實如黍 卽 穀類의 一種)의 意味와 織物名인 穀의 意味도 있다.

粟이란 織物名은 이 織物의 特征에서 얻은 이름이다.

卽 粟은 穀을 일컫는다. 穀은 羅이다. 羅를 高麗에서 「粟」이라고 말했던 것을 孫穆은 그것을 듣고서 「粟」과 同音인 「速」을 取音하였던 것이라 解析된다.

鷄林類事 高麗方言 「羅曰速」의 速이란 高麗語는 漢語의 粟에서 온 말이며, 그 意味 또한 粟에서 온 것이다.

鷄林類事 高麗方言에 記錄되어 있는 「綾曰菩薩」의 菩薩이란 말과 類似한 말들을 주변어에서 찾아본 결과 그러한 말들을 상당수 찾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高麗의 織物名으로 남아 있는 「菩薩」이란 말은 「菩隆」의 誤文이 아니며 「菩薩」은 高麗의 織物名이다.

「菩薩」이란 말의 漢字音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織物名으로서 綾의 異稱인 菩薩이란 말은 히브리語 *būs, buz, būts, boots*, 후의 *bussus*에 그 연원이 있고 菩薩이란 말은 그 말의 高麗語 音譯이거나 한 변형으로 解析된다. 주변 言語에서 이 확브리 語에 연원된 많은 변형들을 찾을 수 있는데 그 말들은 또한 菩薩과도 比較할 수 있는 말들이다.

## 參考文獻

1. 강길운, 고대사의 비교언어학적 연구, 서울, 새문사, 1990.
2. 강길운, “길약어와 한국어의 비교 연구(II)”, 수원대 논문집, 1984.
3. 강희자전.
4. 김방한, 어원론, 민음사, 1990.
5. 김방한, 한국어의 계통, 서울, 민음사, 1983.
6. 김부식, 삼국사기

7. 김철현, 계림유사연구, 「국어국문학」 25, 1962.
8. 남광우, 고어사전
9. 노결태 언해.
10. 동문유해.
11. 몽어유해
12. 문선규, 조선판역어 연구, 경인문화사, 1972.
13. 박통사 언해.
14. 방종현, 계림유사 연구 「동방학지」 2연대 동방학 연구소,
15. 방학근, 한국방언사전, 현문사, 1978.
16. 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 편, 조선말대사전 상, 하, 동광출판사.
17. 서금, 고려도경.
18. 손목, 계림유사
19. 방언집석
20. 신기철, 신용철, 국어대사전 상, 하.
21. 역어유해
22. 유창순, 이조어 사전
23. 왜어유해
24. 이기문, 계림유사의 고찰 「일석 이회승 선생 송수기념 논총」.
25. 이여성, 조선복식고, 서울, 백양당, 1947.
26. 조선말 대사전
27. 陳泰夏, 鷄林類事研究. 塔出版社, 1974.
28. 衫本正年, 東洋服裝史, 論攷, 東京, 文化出版社, 昭和 59년
29. 小倉進平, 朝鮮語方言の研究 上, 下.
30. 勝田豊八, 朝鮮語方言の研究 上, 下.
31. 勝田豊八, 東西文涉史
32. Boucher, Francis, History of 2000 Years of Fashion, New York, Harry N. Abraams Publishers, n. d.
33. Brown, Francis, A Hebrew and English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Oxford Univ Press. 1978.
34. Kalgren, Analytic Dictionary of Chinese and Sino-Japanese.
35. Kim, Jin-Goo, Korean Costume: An Historical Analysis,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The Univ. of Wisconsin, Madison, Wis., 1977.
36. Picken, Mary Bookers, The Fashion Dictionary, New York, Funk & Wagnalls, 1973.
37. Ross, Heather Colyer, The Art of Arabian Costume, Switzerland, 1981.
38. Wignate, Isabel B. ed. Fairchild's Dictionary of Textiles, New York. Fairchild Publications, Inc., 1967.
39. William, S.W. Wells, A Syllabic Dictionary of the Chinese Language.
40. Yarwood, Doreen, The Encyclopedia of World Costume, New York, 1983.